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성명	
전형	
수험번호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오며 자연에 관한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인간 중심주의는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에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을 순전히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자연이 지니는 유용성을 중시하는 ‘도구적 자연관’에 근거한다. 인간 중심주의는 근대 이후 서구에서 자연에 관한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적인 욕망을 좇아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여 훼손한 결과 자연 고갈,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환경 위기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간 중심주의는 현대 사회의 환경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우월한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을 생태계 구성원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인간의 개입이나 문화적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비현실적 입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나)

우리는 어떤 종(種)의 장례식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탑을 세웠다. 이 기념탑은 우리의 슬픔을 상징한다. 우리가 슬픈 까닭은, 위스콘신의 모든 숲로부터 패배한 겨울을 몰아내며 삼월 하늘을 가로질러 봄의 진로를 여는 의기양양한 새들의 돌격 부대를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보다 못한 집에서 살았고, 우리보다 못먹고 또 못입었다.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벌인 투쟁은 또한 우리로부터 비둘기를 앗아간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슬퍼하는 까닭은 아마도 그 교환에서 과연 우리는 이익을 얻었는지 진정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 도구들은 우리에게 비둘기가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은 안락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그것들이 봄의 눈부심에 무엇을 보태는가?

다윈이 처음으로 종의 기원에 대해 얘기한 지 한 세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앞서간 세대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은 진화의 오디세이에서 다른 생물들의 동료-항해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 새 지식을 통해 지금쯤 우리는 동료-생물들을 친족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했다. 함께 사는 삶에 대한 회구, 생명 세계의 장엄함과 영속성에 대한 경외감도 함께 말이다. 다윈 이후 한 세기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이 비록 지금 탐험선의 선장이지만 결코 그 탐험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이전의 가정들은 두려움을 감추어야 하는 단순한 필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중략)

나는 토지에 대한 우리의 윤리 관계가 그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흠모 없이, 또한 그것의 가



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에 대한 높은 평가 없이 형성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내가 말하는 가치란 단순한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광범한 것이다. 즉 철학적 의미의 가치다.

아마도 토지 윤리의 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는 우리의 교육 및 경제 체제가 강렬한 토지 의식을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현대인의 참모습은 많은 매개자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질적 도구들로 인해 토지와 격리되어 있다. 현대인들은 토지와 아무런 깊은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토지는 도시와 도시 사이의 작물이 자라는 공간일 뿐이다.

(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소수의 시민운동가나 대안 운동가에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적정 기술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적정 기술이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제3세계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자, 전통 사회의 기존 조건들과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제3세계 빈곤국의 필요에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으로 ‘중간 기술’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기술 운동의 기초가 된 그의 제안은 종종 ‘대안 기술’ 또는 ‘적정 기술’로 표현되었는데 지금은 후자의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는 적정 기술을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기술이 지역적·문화적·경제적 조건과 양립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도구와 과정들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을 때, 그 기술을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적정 기술의 필요성은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관련된다. 현대 사회에는 강력한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 변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성장 위주 경제 발전의 부작용,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은 이제 항시적인 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위기는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하였다.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권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반면에 적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작동한다. 적정 기술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를 통해 중앙 집중식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소규모 단위의 자립적 생존을 도모한다. 이런 점에서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서 그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라)

극지는 지구의 오존층 파괴와 자외선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강한 오존홀이 존재하여 지구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또한 극지는 청정 지역이며, 지구 자기극 근접 지역으로 우주 연구와 극궤도 위성 추적 시스템 운영의 최적지이다. 게다가 극지의 생물은 미래 생명 공학 연구의 보물 창고이다. 결빙 방지 물질을 활용한 생의학적 동결 보존 기술, 냉해에 강한 농작물, 질병 퇴치를



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한 약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생물학적 촉매 등 아직 미개발된 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식량, 질병,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극지는 미래 에너지, 광물 자원의 보고이다. 채굴되지 않은 세계 원유의 25%와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다. 정보 기술 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유금속 광물도 다량 매장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극지는 생물 자원의 보고이다. 현재 북극해에 있는 수산 자원의 연간 총어획량은 전 세계의 37%에 달한다. 남극 해양 생태계의 크릴새우 등은 미래 식량 대체가 가능한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북극항로 개설을 놓고 해운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극지연구소의 관점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해양환경의 변화이다. 최근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류의 먹이가 되고 있는 플랑크톤 생태계에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플랑크톤의 변화는 곧 수산업 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남극에서는 현재 광물자원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각국 연구진 간에 생물자원 다양성에 대한 공동연구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극지 생물들은 특수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결빙방지 물질로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속성을 활용할 경우 획기적인 냉동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극지생물이 갖고 있는 결빙방지 물질은 얼거나 녹을 때 얼음이 뭉치고 커져 세포를 죽이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를 바탕으로 냉동보관과 냉동인간 등의 연구가 진행중이다. 다른 생물종들도 생명과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마)

서양 사상사에서 데카르트, 뉴턴, 흄스 같은 이름들이 의미하는 사상의 노선은 유기적 세계에 대한 깊은 거부였습니다. 원시 사회에서의 삶을 “더럽고 짐승 같고 짧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모두 도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생산적인 우주를 불모적인 기계주의와 생산 경제 모형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가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향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칼날을 자연에서 분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양의 과학자며 기술자며 지배자였던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인간이 살기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대신, 삶과 죽음을 어리석게 주물러 대어 바야흐로 전 지구가 불명예스럽게 격하되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반면 수렵인이나 소작농, 또는 기능공과 같은 대부분의 인류는 언제나 다른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들은 ‘붉은 이빨과 발톱을 가진 자연’이라는 단순한 말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주고받는 물물 교환의 특성을 찬양함으로써 그 모든 고통을 가진 현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실로 얼마나 큰 나눔의 잔치의 일원들인가!” 식탁에 앉은 우리 하나하나도 결국은 식사 일부가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스러운 것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위태롭고 일시적인 개별적 존재의 신성한 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윤리적 삶이란 진지하게 마음을 쓰고, 예절을 지키며, 기쁨을 갖춘 삶입니다. 온갖 도덕적 결함을 가진 성격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생각이 인색한 것으로, 이것은 모든 형태의 비열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자와 자연에 대해 무례하게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축제성과 종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의사소통의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야생 세계의 예절이 요구하는 것은 너그러움만이 아니라 불편함을 명랑하게 감내하는 기분 좋은 강인함과,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떤 겸손입니다.

(바)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란 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려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싹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많은 벌레들을 씨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빙하기,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 수만 년 켜지 않을 금속의 씨를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싹새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 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 몰라.

— 김기택, <바퀴벌레는 진화 중>

[문제 1-1] 제시문 (가)의 설명을 참고하여 제시문 (나)~(마)를 두 관점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문제 1-2] 제시문 (바)에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시문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며, 각국은 국력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에 가깝고,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아울러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국가들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협력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전쟁과 같은 인간의 잘못된 행동은 제도나 구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이를 일으키는 제도를 제거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22년 2월 24일)

1.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
3.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의 결정(2022년 2월 28일)

□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금일(2.28)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러 수출통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하였다.

* 미측이 독자통제하는 저사양 품목(57종)이며,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여타 제재 조치)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도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하였다.

○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다)

우크라이나는 2006년 나토와 파트너십 협정을 맺은 나토 파트너 국가이다.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나토 회원국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2020년 심도 있는 양자 관계를 의미하는 “확대된 기회의 파트너” 지위를 인정받았다. 문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군사협력이 파트너국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나토와 우크라이나는 2015년 이후 해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해 왔으며, 일부 훈련은 우크라이나 영토 및 영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나토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러시아는 이를 크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미국 및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를 지원하였다. 미국의 살상용 무기 수출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시작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블린 미사일과 같은 고성능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미국이 2021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만도 약 4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터키제 무인 공격용 드론 “바이락타르 TB2”을 수십 대 수입했는데, 이로 인해 돈바스 반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셋째, 미국 등 서방의 군사고문과 교관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켰다. 폴란드 접경지역 야보리우 기지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온 외국인 군사고문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는 곳이었다. 이 기지는 우크라이나군과 나토동맹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는 중심지이기도 하다.

넷째,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더욱 밀착하였는데, 양국은 2021년 전략적 방위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더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내에 미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라)

지난 6월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서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푸틴과 김정은은 이번 6·19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명시하였다. 이번 조약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명시된 러북간 군사동맹 관계의 명백한 복원을 의미하고, 한국과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수용 불가능한 위협을 의미한다. 또한 러시아가 기존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재조종하고 북한으로 편중된 입장과 태도로 변경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북한이 러-우 전쟁 무기 지원에 대한 구체적 보상을 획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북한의 보상 요구에 호응이 불가피한 러시아로서는 물적 보상과 법적 보상 중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법적 보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이 조약에는 러북 간 유엔안보리 제재 부당성을 강조하며 군사기술 협력의 제도화와 과학기술, 경제, 무역, 체육, 의료,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러북관계의 동맹 수준 격상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글로벌 지역질서의 변동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전개될 전망이다. 러북 초밀착의 반작용으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게임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중력의 對한반도 영향력 경쟁 가속화,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 확산과 북한의 공세적 대남도발 등이 예상된다.



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 [문제 2-1] 제시문 (가)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참고하여 제시문 (나)와 (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 [문제 2-2]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라)의 북한-러시아 조약의 동기와 결과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평가하는가를 논의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